

# “정보사회 인간성상실·공동체 와해 ‘불보듯’

## 종교교육강화 윤리관 정립하자

### 12일 종교교육학회 학술회의서 제기

20세기 문명의 귀결점이자 21세기 인류의 터전이 될 정보사회를 맞이해 종교 교육이 충족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 지난 12일 ‘정보사회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열린 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 주최 학술회의에서 발표자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정보사회 메카니즘 이면에 인간성 상실, 공동체 와해, 인간 고도의 역기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앞장서 인류에게 유익적 생명관과 균형있는 가치관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보사회학회(SIS) 세계 22대인 우리나라는 내년 10월 전자주머니드레드 시계 등 정보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이같은 지적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송병순교수(영남대 교육학과)는 ‘정보사회와 종교교육’에서 “정보사회는 정보이용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계층을 소외시키고 사생활 조작 침해할 수 있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컴퓨터의 사이버 공간에 빠져 정신이 황폐되는 병리현상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제일기획이 최근 서울 지역 25~35세 남녀 1백명을 대상으로 생활방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는 가장 큰 관심사로 ‘자신’을 들었고 38%는 세상사 또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사이버공간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정체성 혼미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부딪치고 그 삶을 공유할 때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종교적 사랑은 정보사회의 불평등과 병리현상을 막을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도높은 종교교육을 통해 인간-자연-사회-우주로 연결된 인간존재를 일깨워 주고 정보사회의 양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내창교수(원광대 원불교학과)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 종교의 역할’에서 “확실적인 정보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며 “종교는 △종교의 세속화 경계 △적극적인 문화 창조 활동 △정보 윤리관 제시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해 인류에게 현대 문명을 바르게 불 수 있도록 균형있는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한교수(충북대 컴퓨터교육과)는 ‘정보화 사회의 종교적 고찰’에서 “컴퓨터 통신을 운영하는 정보는 인간의 생물학적 사정각 기능을 무한히 확대한 반면 인간의

의식을 획일화·규격화 시키고 인간을 제어하기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정보 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자아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질·에너지·정보 등 문명의 3대 지주는 생명·에너지·정보로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교수는 “종교교육을 통해 인간이 유기적 생명관에 대한 거시적 통찰이 가능해질 때 현대 문명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사회와 문화”를 발표한 김원홍교수(강원대 사회학과)도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문화제국주의 문화정체성 위기 등 문화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당성과 평등의 논리로 전자정보공간의 문화적 의미를 밝히고 바람직한 정보문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송병순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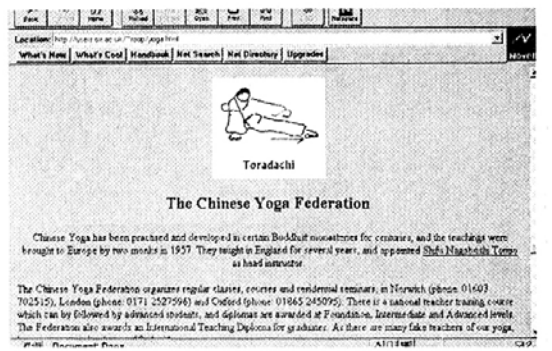
한내창교수



한내환교수



이동한교수



**루디파아 사이버 기행**  
**중국불교의 전통요가**

영국의 대표적인 요가단체인 중국요가연맹이 개설한 ‘중국불교 전통요가’ 사이트는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중국불교의 요가 동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요가의 동작은 ‘몸뭉치집기’ ‘한발놓고 평행집기’ ‘물구나무서기’ ‘허리돌리기’ 등 총 18가지. 자세한 설명과 삽화가 있어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은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 동작들을 자세히 보면 한국불교의 선체조와 비슷하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추안-파(Chuan Fa)’라는 중국 특유의 요가수행법을 소개한 (부처님의 전사들·The Bodhisattva Warriors)과 불교요가 수행자 천스님이 쓴 <불교도의 참선·Buddhist Meditation>도 소개된다. 또 영국의 옥스포드, 런던, 노위치 등지에서 중국불교전통 요가를 배울 수 있는 5곳과 각 센터의 프로그램과 요가수행자들의 정보도 영어와 중국어로 각기 열람할 수 있다.

현재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인도의 ‘하타 요가(Hatha Yoga)’와 비교하는 것도 이 사이트의 재미.  
<http://users.ox.ac.uk/~roop/yoga.html>

요가 동작 삽화 통해 자세하게

국제소식

### 바미안 대불 또 파괴위기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폭파 위기를 넘겨온 바미안 대불이 또다시 파괴 위험에 처했다.

최근 유엔(UN)의 발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군이 탈레반군의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대불의 목계(정수리) 부분에 대공포 포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내전 난민들이 바미안 계곡의 석굴을 피난처로 삼고 있어 난민들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대불 주위에 매설된 지뢰가 터져 바미안 대불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바미안 계곡이 비무장지대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유엔과 국제협력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바미안 대불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 ‘베’ 하노이 불교유적지 복원

베트남 하노이시(市)의 불교유적지를 순례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하노이시가 최근 불교, 유교, 베트남 전통양식이 뚜렷한 건축물의 복원 작업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하노이시 관광행정국장 웬광란 박사(50)는 “사원, 탑, 문묘 등이 복원되면 최소 2백년전의 하노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진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하노이시는 복원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호텔쇼핑센터와 위락시설 등 40여종의 합작투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시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는 2000년대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 학술단신

**보조사상연구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이 제12차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김중명박사(동국대 불교학)가 ‘지불의 법집행행록 요병입사기’에 미친 초기 선종의 사상적 영향-규봉종말의 저술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 이창구박사(전북대 철학과) 등이 참여한다. 발표회는 법원사 불일문화관에서 27일 2시30분에 열린다. (02)733-5315

**‘백련불교논집’ 7집 발간**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백련불교논집> 7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중국 초기 불경 자료에 나타난 백련문법 연구’(박건영) ‘백운선사의 선시 연구’(이중근) ‘추사 김정희의 불교시’(정후수) ‘불교의 중국화’(신규탁) ‘깨달음의 현상적 이해’(홍호스님) ‘깨달음의 근거와 실현의 의의’(묘주스님) 등 논문 8편이 수록됐다. (02)265-5215

**‘불교어문논집’ 2호 나와**  
한국불교문화사연구회(회장 이종찬)가 <불교어문논집>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논집은 ‘조선시대의 승정에 대하여’(김영태) 등 ‘승장(僧將)과 문학’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반야심경의 독송을 변화에 대한 음운론적 해제’(정우영), ‘법화경언해’의 표기사적 고찰’(아달현) 등 논문 11편이 게재됐다. (02)260-3143

### “신라예 정치·사회·문화 주역”

#### 김복순교수 ‘신라 불교계 인재양성’ 발표

“신라 종교기(500~654)의 불교계 인재 양성은 신라의 관직과 관부의 제도적 정착과 맥을 같이 했고, 신라의 유학자들은 선진문물 수용·전파의 주체였다”

김복순교수(동국대 국사학과)는 5일 열린 ‘신라의 인재양성과 선별’ 주제 제19회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에서 ‘신라 불교계의 인재양성과 선별’을 발표하고 “신라는 정책적으로 유학을 선별했고,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사신과 함께 중국·인도로 떠났다”며 “이것은 신라



가 스님을 통해 선진문화를 섭취하고 외교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선덕왕대 자장스님은 신라의 관원에게 중국복식을 착용하게 하고 신라의 연호도 당나라의 영취(永敎)를 사용하도록 했고 진평왕대 원광스님은 수나라에 병사를 청하는 외교문서인 ‘갈사표(乞師表)’를 썼다는 것이다.

또 국정을 보좌하고 왕위계승에 표현했던 신라의 대덕(大德) 스님들 중 <삼국유사>

### 문수원기 비문 1920자 복원

향토사학자 홍성익씨

고려중기 불교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자현(1061~1125) 거사의 생애와 신봉사현으로 일컬어지는 탄연스님(1070~1159)의 필체를 실물로 볼 수 있는 춘천 청평사 문수원기(文殊院記).

홍성익씨(춘천문화원 향토사학자)는 논문 ‘춘천 청평사 문수원기 복원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되지 못했던 문수원기의 비문 1,920자를 복원해 고려불교사 연구에 새지평을 열어 주목된다.

고려중기 불교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한 문수원기는 인종이 이자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130년 진락공(眞樂公)이란 시호를

내리고 청평사에 세운 것으로 대각국사의 천의 제자인 혜소(惠素)스님이 비문을 짓고 탄연스님이 써 가치를 더하고 있다. 홍씨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조선금속총람>을 저본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등 현존하는 10여종의 미완본 탁본과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비문 등을 수합해 비교·검토하면서 각 자료간의 자획, 자간, 행, 행간 등을 복원했다. 총 1,950자 글자가 새겨진 문수원기 비문중 홍씨가 복원한 글자는 비양(碑陽) 1,399자 비음(碑陰) 521자 등 총 1,920자.

이번 연구로 전국향토문화연구 발표회에서 사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성익씨는 “불교학계가 노력해 아직 복원하지 못한 39자를 밝혀 고려불교사연구에 한층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성군 청평사 소재 ‘문수원기’

#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흠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I, II, 불국사·석굴암 I, II
-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발우공양
-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10개 1 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디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